

『창세기 29회: 창세기 26:12-35』

1. 이삭의 번성과 그에 따른 다툼(26:12-33)

12절에서 이삭은 백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 사이에서 거하는 동안 번성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 아비멜렉과 거하는 동안 번성합니다.¹⁾ 그랄의 풍성한 수확은 가나안의 기근과 대조됩니다. 황무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번성을 누립니다.²⁾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시길 원하십니다. 기근을 이기는 방법은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개역개정은 13절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좋은 번역이지만, 히브리어의 반복을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도 살펴봅시다. 유대교 출판협회는 13절을 다음처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크게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 ‘크다’가 반복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에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진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성공을 보고 시기합니다. 시기했다는 단어는 ‘카나’로 심한 질투, 곧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흥분에 가까운 집착을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가진 부를 원했고, 그것을 얻으려고 분쟁을 시도합니다.³⁾ 흥미롭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앞서 이삭의 거짓말은 참아주었지만, 이삭의 번성함은 참아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삭을 쫓아냅니다.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못나고 불쌍한 사람들보다 자신보다 잘나고 행복한 사람들과 지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못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지만, 잘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낙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 주위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잘된 모습을 과시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에서 헛되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대화 중에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

1)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355.

2)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253.

3)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690.

4)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53.

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절망시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5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질투하여 아브라함이 이전에 판 우물을 훔으로 메웁니다. 이들은 한 두 개의 우물을 메운 것이 아니고, 모든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들은 이삭의 변성에 심히 분노했습니다.⁵⁾ 생각해보면, 그랄 거주민들은 우물을 ‘빼앗아’ 자신들이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이 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잃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곡식, 가축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⁶⁾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우물을 두고 맹세했었습니다(창 21:30-31). 하지만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선대에 맺은 언약을 주장하지 못합니다.⁷⁾ 이삭은 매우 유순한 사람이었고, 또한 블레셋의 분위기도 매우 이삭에게 적대적이었을 것입니다.

16절, 결국 아비멜렉은 이삭을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쫓아냅니다. ‘강성함’이라는 단어는 모세오경에서 두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과 20절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들이 증가할 때 사용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를 위협했듯이, 이삭의 강성함이 아비멜렉을 위협하는 중입니다.⁸⁾

17-18절, 이삭은 아비멜렉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그러나 지금은 메워진 우물) 다시 판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으로 우물을 부름으로써 우물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19-22절, 그랄 목자들은 이삭의 우물을 계속 빼앗습니다. 이삭은 반복적으로 우물을 빼앗깁니다. 이삭은 우물을 에섹-싯나-르호봇이라 명명합니다. 에섹[도전하다], 싯나[반대, 사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어근], 르호봇[공개 장소].⁹⁾ 이삭이 르호봇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분쟁이 그쳤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장면은 블레셋 족속에 대한 이삭의 관대함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장면과 겹칩니다.¹⁰⁾

5)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523.

6)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54.

7)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359.

8)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55.

9)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55.

10)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24.

오늘 이야기는 아주 소중한 것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빼앗긴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우물을 양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염려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비멜렉, 그랄 목자들에게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주장하면서, “당신들은 악을 저지르는 중이야!”라고 말하며 싸울 리가 없습니다. 이삭은 무력하고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랄 골짜기에 왔을 때 이삭은 무력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소유권을 우회적으로 주장했지만, 그랄 목자들은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 목자들의 등쌀을 이기지 못하고 그랄 골짜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유산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를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지역에서 벗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삭에게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친구는 내 것이야! 이 물건은 내 거야! 이 시간은 당연히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내 것이야!”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내 것!’ 이렇게 ‘내 것’ 의식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든지, 사탄의 소유이든지 둘 중 하나이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이든지간에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억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앞서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복을 이유 없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축복을 ‘내 것’이라고 온전히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받은 축복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며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친구, 관계, 돈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한 것 없이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수많은 열등감이나 교만함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것입니다. 외모, 부모님, 아이큐, 유전자 단 하나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노력하는 능력이나 건강조차 전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

난 사람을 만나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우리도 그런 조건이었으면 비슷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도 교만하게 굴지 마십시오.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조건이었다면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열등감과 교만함과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린도전서 4장 7절). 그럴 때, 우리는 르호봇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¹¹⁾

24절, 창세기 25장 11절은 “브엘세바”를 이삭의 고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마 기근이 끝난 후 이삭은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¹²⁾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또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25절,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삭이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행동입니다.¹³⁾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약속을 믿고 반응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을 따르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의 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잠언 16:7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화평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사람만 붙잡고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

11) 정우준, 『창세기 I』(서울: 부크크, 2019), 325-329.

12)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58.

13)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60.

니다. 오히려 말을 하고, 애를 쓸수록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는 아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 부모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소통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만, 소통을 아무리해도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하심이 있어서 사람 사이를 중재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6절-33절, 아비멜렉은 이삭을 만나려고 법무 장관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려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다른 두 장관에게 실망을 표현합니다.¹⁴⁾ 그들은 이삭을 미워했고,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표출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해야 할 말을 못하면 답답해서 못 삽니다. 다만, 우리는 말을 참아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이삭은 적절한 때를 만났고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치유합니다. 또한 그동안 족장으로서 실추되었던 권위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라고 대답합니다. 블레셋 족속은 온 힘을 다해 이삭을 방해했으나, 이삭을 망가뜨릴 수 없었습니다.¹⁵⁾ 이들은 이삭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이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이삭에게 베푼 호의를 주장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창 26:29)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는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식사는 서로 가족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¹⁶⁾ 드디어 이삭은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삭이 평화를 얻자마자 종들은 “그 날에” 물을 찾습니다. 25절에서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은 날에 우물을 완성한 것입니다.¹⁷⁾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기 전에 미리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우물의

14)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27.

1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27.

16)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62.

17)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63.

이름을 브엘세바로 짓는데, 세바는 맹세 혹은 일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우물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양의 우물, 이삭의 가족과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물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브엘세바를 보고도 어찌지 못하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때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용서를 하라고 권하시곤 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용서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복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체적으로 창세기 21장과 26장은 닮아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유사성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¹⁸⁾

2. 에서의 헛 사람 아내(26:34-35)

에서는 40세에 두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삭은 이 당시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두 헛 족속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에서는 헛 족속의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 아님을 다시 증명합니다. 에서는 스스로 결혼처를 정함으로써 부모를 무시했습니다.¹⁹⁾

이 사건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사건 직전에 위치합니다. 이 사건은 축복을 빼앗기게 될 에서가 헛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시켰다고 기록하면서, 다음 장의 배경을 제공합니다.²⁰⁾

18)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693.

19)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65.

20) John H. Sailhamer,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357.